

종합·해설



4·11 총선 표밭은 지금

여수 을

민주 주승용·박종욱 '리턴매치'

여수 을은 민주통합당 소속의 두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7대·18대 총선에서 연속 국회에 진출한 주승용 의원이 수성에 나섰고, 17대 총선에서 주 의원에겐 패한 박종욱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17·18대 총선에서도 각각 66.9%와 83.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표차 2위를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책위 의장 등 민주당의 주

Table with 3 columns: 정당, 이름, 나이, and other details for 박종욱 and 주승용.

* 후보는 가나다 순

박종욱 '이번엔 안 놓친다' 공천경쟁 올인
현역 프리미엄 주승용 '3선 길목 이상없다'
시·도의원 비리사건 연루 지역 민심 변수

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주 의원과 맞설 후보의 등장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선거구 확정문제도 큰 관심거리다. 현재 갑·을 지역으로 나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여수 갑 김성권 의원의 맞대결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요 당직을 맡으면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및 반값등록금 등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또 국고 예산과 특별교부금 등 지역 내 국비 확보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있다. 현재 선거구 확정문제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 의원에 맞서 또 다시 도전장을 내민 여수 출신의 박 후보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주 의원(당시 열린우리당)에 고배를 마셨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 박 후보는 해양을 주제로 한 문화·관광·산업·연구기관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교육기관을 유치해 여수를 남해안 벨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민주통합 '여성공천 15%' 논란 가중

당규 합의 불구 당내 갈등...남성 후보들 최고위에 향의

4·11 총선에서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키로 한 민주통합당의 원칙과 관련, 당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15% 이상 여성 할당' 당규에는 합의했으나 당무위원회 등에서 개인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구 추가 여부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전략공천을 많이 해서 20명을 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7명은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연성 없이 의무규정으로만 정할 경우 탈락 여성후보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때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전날 당무위에서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등이 논의됐으나 여성 당무위원들의 거친 항의가 잇따르자 15% 의무규정은 확정하되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문구를 더 찾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략공천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후보 등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비주류 전 의원 등 수도권 중심의 남성 후보 1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 15% 의무공천을 권고조항으로 하거나 예외규정을 두도록 수정해야 한다"며 "15% 의무공천은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지역위원장 등 기성정치인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찾아 공식 항의하기로 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효력저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4·11 총선 현장

김재균, 재선 도전 선언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 을)은 7일 4·11 총선에서 지역구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재벌개혁, 99% 서민을 위한 개혁을 통해 정채불명의 정당이라는 오명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며 "19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전경련 해체 등 재벌개혁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영택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서구 갑)은 7일 18대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및 '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연대를 결성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중소기업인들이 그간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는데, 정부와 대기업 카드사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3선 도전 공식 선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광양)은 7일 광양 시청 홍보실에서 3선 도전을 위한 4·11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은 당에 대한 기여도·도덕성 등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당의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며 "총선 공천기준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당의 가치·철학 등과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3선의 힘으로 광양만권의 중심, 더 큰 광양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민주화·장애인고용·노인복지·무상급식·무상교육·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 해결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병윤 '어린이 식품 안전을'



통합진보당 오병윤 서구 을 예비후보는 7일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신고통표시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돼 있으나 상인 및 식품제조사의 참여 미비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보다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어린이 기호식품 신고통 표시제 의무화·점담관리원 교차 점검 및 처리 지침 마련·노스한 수입관리 체계 개선 등을 대책안으로 내놨다.

안영돈, 북구 을 출마 선언



진보신당 안영돈 북구당협위원장은 7일 4·11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 출마를 공식선포했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들은 경영세습과 기업 해의 이전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을 버려둘 꼴로 내몰고 있다"며 "민주통합당과 짝꿍 진보는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진보신당은 현실적인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어 역사적으로 변혁을 내러오는 진보적 가치를 정립하고 확대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형, 전남도당 윤리위 제소



민주통합당 이석형 함평·영광·장성 예비후보는 7일 "지난해 전남도당이 지역 주민들의 입당 원서를 받고도 근거 없이 입당을 불허했다"며 전남도당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대규모 입당 불허가 사실임에도 전남도당이 이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함에 따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공정 경선을 위해 이낙연 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남도당이 989명의 입당 원서를 받고도 420명에 대해 근거 없이 입당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신홍섭, 광양 무소속 출마



신홍섭 광양 예비후보는 7일 민주통합당 탈당을 선언한 뒤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 신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꿈수정치는 또다시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며 "15만 광양시민에게 시민주권정치, 생활정치 실현의 희망을 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또 "특정세력의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통합당의 분열된 정치행태로는 시민주권정치의 희망을 담아낼 수 없다"며 "국민이 없고,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는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한미FTA 중단해야'



민주통합당 황주홍 장흥·강진·영암 예비후보는 7일 최종 발표절차가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날 지역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는 국민경제·농촌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여지가 크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또 "정부가 한미 FTA를 발표시킨 뒤 독소조항을 재협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유행어 맞지 않는다"며 "한미 FTA는 절대 발표돼선 안 된다. 19대 국회 구성 후 이를 폐기하고 재논의해 국민의 이익과 의사에 맞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복합상가(매매)
*복합상가 1층상가 323평 평당1,200만원(38억)
*복합상가 2층상가 121평 평당1,730만원(21억)
*상무지구 1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청앞)
*상무지구 4,700㎡(약1,357평)·평당 330만원(예식장 직할)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60평
*매매금액: 45억원
*상무지구빌딩매매
*대지: 257평
*연건평: 900평
*보증금: 4억3천만원/월2200만원
*아파트 1층상가 매매
*분양면적: 106평
*보증금: 10억원
*매매가: 38억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청앞)
*상무지구 4,700㎡(약1,357평)·평당 330만원(예식장 직할)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NH공자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오피스텔 상가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분양가 이하 구매 1,174㎡.
*상무지구 시청앞 NH공자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청앞)
*상무지구 4,700㎡(약1,357평)·평당 330만원(예식장 직할)

부동산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분양가 이하 구매 1,174㎡.
*상무지구 시청앞 NH공자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상무지구 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청앞)
*상무지구 4,700㎡(약1,357평)·평당 330만원(예식장 직할)